

■■■ 감동적인 합격기

[2022년도 변리사시험 수석합격]

## 고시는 전략게임, 최적의 루트 찾아야



김 주 안

- (서울) 선덕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재학 중
- 제2차시험 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시험 수석합격

### I. 수험기간 및 점수

#### 1. 수험 기간 (총 2년)

- (1) 1차시험: 2020년 7월 중순 ~ 2021년 2월 말
- (2) 동차시험: 2021년 3월 ~ 2021년 8월 초
- (3) 기득시험: 2021년 11월 ~ 2022년 7월 말

#### 2. 점 수 (1차: 13등 / 기득: 수석)

- (1) 1차 (90.83/76.66): 민법 95 / 산업재산권 법 95 / 자연과학개론 82.5
- (2) 동차(47.66/54.77): 민사소송법 43.33 / 특허법 46 / 상표법 53.33 / 디자인보호법 61.33
- (3) 기득(61.66/55.22): 민사소송법 73 / 특허법 54.33 / 상표법 57.66 / 디자인보호법 58.33

### II. 대원칙 및 공부 방법

#### 1. 대원칙 -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

변리사시험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이공계 출신 대부분에게 타고난 리걸 마인드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시행착오를 겪으며 후천적으로나마 변리사 시험 전용 사고방식을 갖추하고자 했다. 이는 전략적으로 공부 방식을 수립하는데 부터 시작된다.

공부 전반을 3단계로 나누었다. [ 1) 암기 → 2) 이해 → 3) 풀이 ]가 그렇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암기는 코드 작성, (2)이해는 코드 리뷰, (3) 풀이는 디버깅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궁극은 풀이이며, 이를 위해 암기를 통해 머리에 개념, 판례 등 코드를 써 내려 가고 이해를 통해 코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 하나 뜯어보는 과정을 거쳐 결국 풀이를 통해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사고 오류, 실수를 디버깅하는 과정이다. 각각 무엇인지는 공부 방법에서 상세히 밝힌다.

위 과정 내지 전략을 이용한 이점이다. 첫 번째로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워낙 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은 시험이다 보니 길어지면 길을 잃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하는 중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내정해둔다면 당장 하고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공부가 뚜렷해진다. 이는 버리는 시간을 줄여 준다. 두 번째로 과정 자체가 효율적이다. 공부 시간이 적은 편임에도 고득점 합격을 담은 위 과정을 통해 버리는 시간을 줄이고 또 '필요한' 공부만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성취가 있다. 해야 하는 공부가 명확해지다니 보니 하나 하나 마치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성취를 느낀다. 땅을 파는 느낌이 아닌 나아가는 느낌을 주기에, 마라톤 같은 고시 공부에서 그나마 덜 지치게 해준다.

## 2. 공부 방법

### (1) 암기 - 가볍게 읽고, 정독하고, 가볍게 읽과의 3 사이클

요지는 '익숙해지기'이다. 외울게 심하게 많

은 시험이다. 문장 그 자체를 암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한다. 이에 제가 암기했던 방식을 적는다.

총 3사이클의 과정으로서 이는 ① 가볍게 훑히 읽고, ② 차근차근 정독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③ 다시 한 번 가볍게 읽는 것으로 구성된다.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렵다 보니 처음부터 외우려고 애쓰면 오히려 머리에서 튕겨 나가는 경험이 많다. 반면 한 번이라도 대충 읽어보고 대강 내용을 알기만이라도 뒀다면, 훨씬 암기하기가 수월했다. 즉 우리의 뇌는 당연하게도 '익숙한 것'에 대한 암기를 편하게 느낀다. 따라서 가볍게 읽으며 익숙해지고 정독하면서 외우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가볍게 읽으며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쌓으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유의점은 정독 단계에서 당장 외우려는 게 아니라, 외우려는 '노력' 정도면 충분하다. 회독 반복으로 암기는 쌓여간다.

또한 암기는 '이미지 기억'의 방식이었다. 책 내용들의 기재를 '위치'로 기억했다. 마치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자신의 빈틈을 파악하기도 용이하며 회독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또 눈점 추출 할 때에도 편리하다. 다만 단순 암기를 넘어 이미지까지 암기하는 것은 시간이 더 소요된다. 적당히 시험 1달 전이어도 괜찮다고 보인다.

암기의 정도는, 80% 정도의 정확도를 목표로 삼았다. 토씨 하나 안 틀리는 암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에 판례 주요 키워드, 문장 흐름, 논리 구성 정도만 드러낼 수 있어도 암기했다고 보았다. 목표점이 그러했고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 원문에 가깝게 암기 수준이 올라가겠지만 처음부터 그러긴 매우 어려우니 저

정도 목표점만을 삼으시고 자연스럽게 수준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암기하는걸 추천한다.

**(2) 이해 - 풀이를 위한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

요지는 ‘어떤 사실관계에 쓰이는 판례인지 인지하는 것’이다. 방대한 양에 밀려 암기만 하다보면 정작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 외웠더라도, 어느 상황에 써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 까닭이다. 그러나 변리사시험 합격을 위해 ‘이해’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교수님은 저희가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게 안 보신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리를 이해하는지 내지 법체계를 조망하고 있는지를 더 중시하고, 이는 문제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풀어내는지에서 판단된다. 수학 공식을 단지 외웠다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처럼 각 공식(판례)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사실관계에서 논점이 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① 판례원문 읽기, ② 문제풀기가 그렇다. 기본서 내 판례들은 요지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정확히 어떤 사건 내지 사실관계에서 도출된 것인지 곧바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로 ‘판례원문’ 및 사실관계를 읽어보며 그 판례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풀기’를 통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 역시도 판례 기반한 사실관계를 주기에, 틀렸더라도 답안을 보며 “아 이 판례가 이런 사실관계에서 쓰이는구나”하며 파악해볼 수 있다. 이해했거나 알게 된 점은 기본서 내 그 판례 위에 조그맣게 필기해 두었다.

이해 과정을 충실히 거치면, 실제 문제를 풀

며 논점도 정확히, 신속하게 추출해낼 수 있고 또 논점 혼동도 줄어든다. 중요하게는 백화점식 답안을 피할 수 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판례가 쓰이는지 정확히 안다면 저격하듯이 답안을 쓸 수 있기에, 단지 나열하여 몰라서 다 썼구나 하는 인상의 답안을 쓰지 않게 된다. 말 그대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 요구되는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풀이 -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1차, 2차시험 무관 풀이는 당연히 요구되는 과정이다. 제게 풀이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와 어느 부분에 약한지 확인해보는 과정이었다. 더 정확히는 틀리기 위해 문제를 풀었다.

내게 문제풀이는 데이터 수집 및 경험치 누적이었다. 회독만으로는 해당 부분들의 공부 가 됐는지 여부 확인이 미흡할 수 있기에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맞은 부분보다는 틀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고 틀릴 때마다 빈틈을 보완할 기회라고 여겼다. 틀릴 경우에 기억에 오래 남는 편이어서 회독을 할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암기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틀리고 외우자는 마인드였다. 공부를 장기간 하면 언젠가는 문제 풀며 꼭 틀리게 되니 시험 직전까지 계속 모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안 가져도 된다.

풀이 단계에서 크게 알려줄 점은 없다. 이미 잘 하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되고 한편 이하 ‘(5) 단권화 방법’에서 기재될 ‘실수도 회독하기’와 아울러서 문제 풀이를 이용하면 된다.

#### (4) 회독 - 내가 정말 아는지 재확인

변리사시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효율적인 '회독'을 향했다. 시험 전까지 가능한 많은 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 삼았다. 이는 1차 및 2차시험 공통이다. ① 초반부의 대략적 회독 방법은 '암기'에서 3사이클을 통해 소개했고, ② 암기가 된 상태라면 회독을 더 유의 깊게 해야 한다. 말이 회독이지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과정으로 매우 지루하고 느낄 때가 많다. 이는 결국 그저 습관대로 그리고 무의미한 공부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회독을 하며 중시했던 것은 항상 '낯설게 읽기'였다. 항상 새롭게 읽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고, 익숙한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설령 읽게 됨을 경계했다. 또 회독을 반복하며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재확인했다. 즉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는데, 이 역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다. 마찬가지로 계속 그러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언젠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회독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자면 회독이 습관이 돼서는 안된다. 회독도 엄연하고 막중한 공부이기에 늘 자기도 모르게 허물어지는 마음을 경계하길 바란다.

또 중요하게 여겼던 건 단지 내용뿐 아니라 실수나 단점들도 회독하려 신경 썼다. 이 부분이 제가 공부 시간이 적었음에도 고득점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자세하게는 이하 '(5) 단권화 방법'에서 밝힌다.

회독 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으로는,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일정 기간 내에 1회독 해야지 목표 삼아 하고, 1회독을 마칠 때마다 그 기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회독을 늘리면 큰 부담없이 회독 속도를 늘려갈 수 있

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무리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 (5) 단권화 방법 - 볼 것만 챙기자

단권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① 키워드 형광펜 칠하기 및 ② 보완사항 필기이다.

대개 목차에 형광펜을 칠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의 단권화를 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의의 취지나 판례 등에서 드러나는 키워드에 형광펜을 칠했다. 즉 '내용'에 형광펜을 칠하는 과정을 합쳐서 약 1.5달 가졌다. 이 경우 이점은 효율적인 암기 및 회독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판례를 100% 똑같이 암기할 것까지 요구되는 시험은 아니다. 이는 '암기' 설명에서 언급 했다. 그러한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다회독이 필요했고 시선의 이동경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의 형광펜으로 그쪽만을 빠르게 읽게 하여 회독의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소개 하긴 하나, 크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형광펜을 칠하거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각자의 방식대로 함이 타당하다. 내 단권화에서 중요한건 다음이다.

이해나 풀이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수들, 빈틈들이 있었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수도 회독을 하자"는 생각을 가졌다. 이 과정이 매우 도움됐다. 논점·판례별로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잘못 이해하는 부분, 부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다. 나는 이들을 해당 내용 위에 조그맣게 필기했다. 실수 역시 회독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나의 실수들도 암기해가면서 회독하기 위한 단권화 과정을 거쳤다. 이것

은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야 한다. 달마다 gs나 공부량들이 쌓여가면서 마찬가지로 실수들도 쌓여간다. 결국 이러한 실수 단권화는 시간을 정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까지 계속해서 추가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된다.

위와 같은 실수 단권화를 하다 보니 강의 등에서 듣는 내용은 기본서에 필기하지 않았다. 나는 실전 gs만을 들었는데, 해당 gs 문제지에 적었다. 까닭은 기본서가 가능한 깔끔하게 보여야 했고 정말 '볼 것'만을 기본서에 담아 회독하기 위함이었다. gs 문제지에 필기한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gs 역시 회독을 하기에 크게 놓치는 내용들은 없게 된다. 제일 중요한 회독을 위한 선택적 필기였다.

### Ⅲ. 기간별 공부

#### 1. 1차시험 기간 (2020년 7월 ~ 2021년 2월)

##### (1) 시기별

7월 중순~9월까지는 민법 인강과 화학 인강을 다 듣는데 모든 시간을 소요 했다. 인강을 들으며 가능한 복습을 하려고 했으나 진도 나가지만도 벅차서 많이 하진 못했다. 이 기간은 특별히 고시 공부를 한다기 보단 위밍업을 하며 고시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삼았다. 대략 9월 초 중순~10월 말까지 특허 강의와 물리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 무렵 민법 복습도 병행 했다. 반면 이 당시부터 인강을 듣는 과목의 복습을 병행하는건 정말 어렵구나 느꼈다. 따라서 애초에 인강이 다 끝난 이후부터 복습을 시작하고, 인강을 우선 빨리 끝내자는 계획을 가졌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상표법 강의와 지구과학 강의를 수강했으며 특허법 및 민법 복습을 병행했다. 12

월 중순까지 디자인보호법 강의 및 생물 중급 강의를 수강했다. 전 과목 복습을 병행했다. 복습할 과목들이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하루 공부시간도 늘었다. 인강 완강 후부터는 회독 및 문제풀이는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대략 1월 내지 2월 즈음에 최신 판례강의를 민법, 특허법에 한정해 수강했다.

##### (2)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민법은 대략 10월 중순부터 진행했다. 산업재산권법 문제풀이는 12월, 즉 인강수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진행했다. 자연과학 문제풀이는 각 과목 별 인강 수강을 마치고 1회독을 진행한 뒤에 진행했다. 앞서 풀이가 빈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말했는데 특히 1차시험에서 그 의미가 짙다. 1차시험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 단순히 회독만으로 그 양을 커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문제집도 여러번 회독을 했다. 회독을 진행하면서 문제 옆에 틀린 횟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후반부 시기에는 자주 틀리거나 헛갈리는 문제만을 다시 풀어보며 회독했다. 차츰 그러한 문제들만 추려가다 보면 방대한 문제집이라도 회독 속도가 꽤 오르게 된다.

문제집을 풀었던 방법은 2사이클이었다. 우선 하루마다의 분량을 목표기간까지 1/n로 나누어 정했고, 하루치 문제를 2번 풀었다. 한번은 빠르게 풀었고, 두 번은 틀린 문제 위주로 왜 틀렸을까 고민해가며 정독하듯이 풀었다. 또 그런 부분을 기본서에 체크하거나 새로 판례를 옮겨 적었다. 무척 고된 과정이긴 하다. 당연하지만 1회독에 2회독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하루에

두 번보다 보니, 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일이 적었다. 나아가서 ② 틀린 문제에 대해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문제 푸는 시간이 배로 늘어나기는 하나, 실수 빈도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을 모아서 수험기간 전체에서는 결국 시간을 아끼는 결과가 된다. 1차는 무조건 많이 틀려봐야 한다. 그래야 빈틈을 메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 (3) 회독

제게 있어 '1차시험'의 회독은 틀린그림 찾기였다. 1차시험부터 회독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이 방대한 분량을 정독을 통해 외우기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흔히 눈에 바르다 라고 표현하듯 시험이 다가올수록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여기서 눈에 바르다 함은 판례의 결론을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2차와 달리 결코 판례를 줄줄이 외울 필요가 없다. 해당판례를 보고 결론 또는 근거만 맞출 수 있다면 충분하다. 내 생각에는 1차시험 합격의 기술은, 판례를 깊이 이해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판례의 결론을 인지하는 상태에 빨리 이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실제 시험도 그렇다고 보인다. 수험생 분들도 다회독을 목표 삼으셔서 많이 보길 바란다(민법 20회독, 산재법 각 15회독을 하고서 시험을 치렀다).

조문 회독도 따로 했다(산업재산권법 한정). 실제 시험에서 조문으로 장난치는 문제 나오는 까닭이다. 조문 회독은, 문제풀이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산재법에서 기출문제만 풀었는데 대부분 조문가지고 장난치는 포인트들이 유사하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조문 장난 및 포인트를 조문집에 밑줄 긋거나 조그

맵게 적어놓는 식으로 필기했다. 조문 회독을 했을 뿐 조문을 달달 외우지 않았다. 기본서 회독과 마찬가지로 눈에 바르는 식의 회독을 반복했다. 조문 회독은 작지만 크게 도움되는 요소이다.

내가 느끼기에 1차시험에서 법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매우 드물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암기 및 문제풀이 능력이 더 크게 요구된다. 1차는 결국 2차 진입을 위한 발판에 불과하기에, 합격하면 끝이다. 그렇다보니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깊이 파보려고 노력하는건 지양점이었다. 그런 공부는 2차 때 차고 넘치게 한다. 1차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붙는걸 목표로 삼길 바란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 풀이 및 회독 방법은 1차시험 한정이므로 2차시험 때 적용하면 안 된다. 1차시험 기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① 인강 완강 전까지는 해당 과목 복습을 하지 못했고, 다음 과목 인강을 듣기 시작할 때 복습을 시작했다. ② 통상 수험생보다 인강 완강 시기가 늦은 편이었으나 회독 속도가 빨라지니 공부 부족하다 느껴지진 않았다. ③ 빈틈 메우기 위해 문제풀이도 중요했으나 결국 회독을 가장 많이 했다. ④ 2차시험과 병행하지 않았다.

## 2. 동차 시험 기간 (2021년 3월 ~ 2021년 8월)

1차시험 끝나고 일주일 쉰 뒤 3월 초에 민소법 기본강의,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기초 gs를 수강했다. 기본강의는 당장 진도를 나가는데만도 너무 힘들어서 진도가 많이 밀렸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주차 논점만은 암기하려고 노력했다. 답안지 자체가 무엇인지 낯설어서 많이 헤맸던 3월이었다. 4월

에는 여전히 민소법 기본강의 수강 중이었고, 상표법 기초gs를 수강했다. 답안지가 대충 이 런거구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해당 주차 논점만은 암기하려고 했다. 이때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복습은 거의 하지 못했다. 5월에는 겨우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를 수강하는 와중이었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전 gs를 처음으로 수강했다. 5월 쯤에서야 특상디 복습을 병행하는게 가능했다. 6월에는 상표법과 민사소송법 실전 gs를 들었다. 이 때 쯤 되니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감이 생겼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암기가 부족했기에 등수는 높게 나오지 않았고, 당장 암기량만을 채우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또한 6월부터 슬럼프가 와서 공황장애, 스트레스를 한 몸에 견디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7월에는 혼자 기본서 및 gs 회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기득 시험 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7월)

#### (1) 시기별

결과 발표가 있는 11월까지의 공부를 못했다. 11월부터 12월 초 중순까지 민사소송법 심화강의를 수강했다. 그리고 특허법과 상표법의 암기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회독을 진행했다. 디자인보호법은 3월까지 일체 건드리지 못했다. 처음 gs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 풀이는 없었다. 1월부터 처음으로 gs를 듣기 시작했다. 문제 풀이는 데이터 수집 및 경험치 누적이었기에 가능한 빨리 시작하면 좋다는 생각이었다.

gs를 수강해가면서 동시에 1, 2월에 특허, 상표법 사례집(특허는 기출)을 풀었다. 또 민

사소송법 암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3, 4월에 과목 별로 관례를 이해하는 공부(관례집 또는 문제풀이 통한)를 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형광펜을 치는 등 단권화 과정도 가졌다. 5, 6월에는 암기를 더 촘촘히 함과 아울러 작은 실수나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등 사고 방식을 변리사 시험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7월에는 새로운걸 하진 않고 그동안 공부한걸 완전하게 체화 시키는데 중점을 맞추어 공부했다. 모든 공부나 실수들은 기본서에 필기돼있으므로 머리 속으로 계속 회독하며 시험 날을 시뮬레이션 했다(시기 상관 없이 회독은 계속했다).

약 2달 쯤 나누어 덩어리감 있게 목표를 설정해 공부했다. 그 덩어리는 암기, 이해, 풀이로 분류된다. 시기를 크게 나누어 공부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 시기가 지남(약 두 달)에 따라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해볼 수 있어 자신감도 붙는다.

#### (2) 합격에 도움을 준 요소

##### 가. 암기 시기 앞당김

동차 때 암기에 급급하여 실제적으로 이해하거나 문제 풀 시간이 여실히 부족했던 기억으로 암기는 3~4월에 모두 끝내려 했다.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덕분에 5월부터 시험 전까지 이해와 문제 풀이, 잘 쓴 답안지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할 시간이 충분했다. 본 시험은 암기에 커 보이거나 결국 암기 시험은 아닌 관계로 가능한 암기를 빠른 시기에 끝내시길 추천한다. 제 생각에는 암기를 미루는 것이 이 시험에서 가장 큰 실수거리라 보인다.

나. gs 복기 증시

gs를 풀고 늘 최소한 화요일 내에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무슨 이유로 잘못 생각했을까” 고민하는 복기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암기한 수험생을 넘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험생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복기는 gs 뿐 아니라 사례집,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당연히 했는데 논리 시험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하길 바란다.

다. 과목마다의 특징 이해

앞서 대원직에서 공통적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 당연히 중요하나 과목별로 요구되는 소양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V. 과목별 공부’ 기재하고, 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다른 공부 방향성을 가짐으로서 과목 특화된 답안지를 적을 수 있게 됐다.

IV. 과목별 공부

1. 1차시험 (평균 90.83점 합)

(1) 민법 (95점) - 요지 위주로 눈에 바르기

요지 위주로 기본서 내 판례를 모두 챙겨가는 것, 민법 고득점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양이 방대하고 보통 변리사 시험의 첫 단계로서 낯설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방대한 내용들을 전부 봐야 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으로 다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많이 봤다. 보는 대상으로는 판례 요지를 대체로 봤다.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는 식으로 판례 요지만 보았고, 그 외에 사실관계 설명 들을 잘 보진 않았다. 또한 민법의 경우는 조문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적으므로 조문 회독을 굳이 별도로 하진 않았으

며 기본서 내 소개된 조문 정도로만 눈에 발랐다. 내 있어 민법 회독은 판례 결론만을 잘 맞추기 위한 편협적 회독이었다고 보여진다. 공부의 정도는 아니나, 1차를 빨리 붙는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법에 한정해 회독보다 중요한 건 문제 풀이였다. 틀리면 기억이 많이 남는 편이라,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표로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다. 민법의 양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회독한다 해도 빈 틈을 알아차리기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문제를 풀면서 빈틈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면 어디가, 어떤 식으로 부족한지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문제 푸는 방식으로, 오전에 실제 시험 풀 듯이 리프하게 빠르게 풀어나갔다. 그리고 저녁에 틀린 문제 위주로 필기하거나, 왜 틀렸을까 고민하는 방식으로 다시 풀었다. 즉 하루에 두 번 풀었다는 것인데 무척 고통스럽긴 했다. 그러나 아주 효과적이었다.

맞거나 틀린 횟수를 문제 옆에 기재하여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투망하려고 했다. 총 회독 수로는 기본서 20회독, 객관식 8회독을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2) 산업재산권법 (특: 19개, 상: 9개, 디: 10개 → 95점) - 틀린 그림 찾기

조문 회독과 판례요지 알기, 산재법 고득점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과목 특성상 조문 장난이 제법 많이 나온다. 그래서 민법과 다르게 조문 회독을 별도로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민법을 거치고 왔다면 어느 정도는 공부 방향성이 잡힌 상태이리라 생각되어 산재법에 한정된 방식 위주로 적겠다.

산재법은 민법과 달리 두꺼운 기본서의 별



도의 요약서(디자인보호법은 서브노트(김인배)였다.)를 보진 않았다. 그 두꺼운 책을 다 회독 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나 차근히 속도를 늘려가니 결국엔 가능했다. 판례 요지나 봐야 할 것 위주로 회독하면 사실 민법 요약서 회독 시간과 다르지 않거나 적기도 하다. 한편 조문 회독을 별도로 진행했는데,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조문에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쳐 문제를 내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파악이 된다면, 기출 되지 않은 조문이라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겠구나 유의해가며 회독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인 숙달되면 문제 풀 때 장난치는 문제는 정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 또 그런 문제의 비중이 꽤 높은 관계로 당연히 고득점에도 도움이 된다.

객관식은 따로 풀지 않고 기출 문제를 다 회독 했다. 접근 방식에서 민법의 객관식 풀이와 동일한 것은 적진 않겠다. 민법은 단지 빈틈을 메우기 위함이었다면, 산재법 문제 풀이는 회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다. 어느 정도는 산재법 문제 유형이 매년 동일하다. 그러나 민법처럼 판례만 주구장창 내지는 않는다. 아주 약간 그나마 수학에 가까운 과목인 관계로 문제 유형 및 스타일을 파악하면 회독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들이 선별된다.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출만 풀어도 합격에 지장이 없는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총 회독 수로는 각 과목 당 대략 15회독 가량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갔다.

**(3) 자연과학개론 (물리 7개, 화학 6개, 생물, 지구과학 10개 → 82.5점)**

민법, 산업재산권법에서 고득점 받을 자신이 얼추 있었기에 자연과학개론은 방어적으로 접근했다. 법과목 보듯이 회독을 하며, 수학 공식 외우듯이 문제를 풀어갔다. 즉 오로지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한정된 공부만을 했다. 공대생으로서 자존심은 상하나 무의미하다. 가능한 빨리 붙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수험생 본인이 잘하는 과목 두 개를 다 맞겠다는 목표로 공부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절반 이상만 맞춘다는 방어적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매년 1차 합격 평균치는 올라가나, 그렇다고 자연과학 고득점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 보단 그 시간을 법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고득점에 유리하고 신속하다고 생각된다.

## 2. 2차시험 (평균 61.66점 기득 합)

### (1) 민사소송법 (73점, 23p)

#### 가. 정형화된 목차 암기 및 수용

암기량이 2차 과목 중 가장 방대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암기량만 소화해낸다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이라 보여진다. 이는 정평이기도 하다. 따라서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의점은 당연히 무지성 암기는 피해야 한다. 이해가 수반된 암기가 가장 전략적 암기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기득 초반엔 통합, 사례집, 기본서의 회독을 병행했다. 각 의도가 상이했는데, 상기한 암기를 기본서로, 이해를 통합으로, 풀이는 사례집으로 했다. 다른 과목은 위 3단계를 별도로 했으나 민사소송법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같이 진행했다. 그리고 천천히

기본서 회독으로 수렴되도록 했다.

### 나. 주요 포인트

과목 자체가 논점 별로 목차가 정형화 되어 있었기에, 그 흐름을 그대로 외웠다. 처음엔 무작정 외웠지만 공부가 쌓이고 문제를 풀다 보니 모두 논리에 맞추어 정해진 목차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의했던 것은 빠뜨리는 논점 없는 목차라는 이름의 논리였다. 반드시 ① 상위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진행되는 목차를 유지했고, 상위 개념을 생략한 채 문제에 해당되는 하위 개념(논점)만을 적는 일이 없도록 했다. 모든 수험생들이 문제에 해당되는 주요 논점을 다 쓸 것이기에 차별점을 상위 개념(논점)으로 두고자 했다. ② 결론(설문해결)을 반드시 별도로 적었다. 명확히 끝나는 논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 (2) 특허법 (54.33점, 21p) - 판례의 면밀한 이해

가. 의외로 할 게 많음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과목이었다. 이유를 생각해 본 바, 발명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데, 이를 논리적인 법리로 풀어내려니 내용이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걸 차차 알게 되는 까닭이었다. 이는 나아가 문제가 러프하게 출제되는 이유까지 된다고 보인다. 때문에 나는 아래 두 가지로 접근 했다.

나. 특허법은 특히 판례이해 과정을 길게 잡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출과 GS를 풀면서, 판례집을 공부하면서 외우고 있는 판례가 정확히 어떤 사실관계에서 쓰이는 판례인지 파악했다. 특허는 특히, 외우고 있더라도

어느 판례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때문에 gs에서도 백화점 식으로 큰 논점 안의 모든 판례를 다 적기도 했는데, 이는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한다.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풀며 경험적을 알게된 판례들의 진의를 기본서에 자그맣게 필기하여, 판례를 타겟팅하는데 노력 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특허법 자체의 이해도뿐 아니라 답안에 '필요한' 내용만을 쓸 수 있어 훨씬 논리적인 답안지를 적어낼 수 있게 됐다.

다. 러프함에 적응하려 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러프하다. 이는 판례 이해만큼이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는다. 사고방식을 변리사 시험 문제에 맞추려 한 것인데, 문제가 러프할수록 수험생 사이에서 다양한 답안지가 나온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단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기에 특허법에서는 더욱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 중요성이 커진다. 러프한 기출을 느끼면서 답안(목차)를 적고서 모범 답안과 유심히 비교했다. 그러면서 나의 사고방식이 변리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과 어느 정도로 어긋났는지 파악한 후 바뀌나가려 했다. 매우 느리고 희미한 과정이지만 저는 도움을 받은 방법이었다.

### (3) 상표법 (57.66점, 25p) - 기계적이고 수학적 접근

가. 상표법은 동차 때도 53.33점을 받아 어느 정도 강점인 과목이었다.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을 뽑으려면 1, 2위를 다투는 과목이기도 하다. 특허법이나 민

사소송법처럼 논점들이 크게 크게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논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즉 신경 쓸게 아주 세세히 많을 과목이다. 어느 과목보다 논점 누락하기 쉬우므로, 제 상표법 공부도 이를 중점으로 진행했다.

나. 모든 논점들을 수학 공식 암기하듯 보았다. 대표적으로 침해 여부 검토 '유.상.보.정.제.남.' 또는 119조 1항 1호 취소심판의 '상.고.유.수.누.대.'가 그렇듯 상표는 대부분이 논점 아래 요건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건드는 논리 과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내용 암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상표법 자체 목차 내지 논점 내 목차까지 암기하는걸(두문자 추천) 권면한다. 그러면 훨씬 논점추출이 빨라지고 동시에 논점 누락할 개연성도 줄어들게 된다.

다. 동차부터 기득까지 모두 고득점한 이유를 돌이켜 보자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썼다"라고 보여진다. 이는 논점 누락이 없음과 동시에 논점 이탈이 아닌 한 기재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 썼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34조에서 저촉되는 조항 뿐아니라, 저촉이 안되는 조항들도 짧게나마 모두 언급했다. 물론 그 안에서 더 중요한 논점을 강약 조절했다. gs 시즌부터 그러려 노력했던 까닭은, 저촉되는 것만 나열하기 보다는 저촉 안되는 것도 '왜 저촉이 안되는지' 같이 언급하는게 문제를 푸는 느낌을 주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지면 할애가 많아진

다. 필속이 따라주었기에 모두 적어낼 수 있었으나 꼭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생각된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답을 쓰려 하기보단, 연습하며 실력 및 필속이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써보시는걸 추천한다.

**(4) 디자인보호법 (58.33점, 23p) - 출중한 암기 및 사안포섭**

가장 무난한 선택과목이라 생각되어 선택했다. 1차 과목으로서 익숙하고, 목차 논리도 특허에 묻혀갈 수 있으니 공부량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얇은 기본서로 책 전체를 암기했고, 특허 및 상표법에서 익힌 사안 포섭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만의 특징적 공부 방법은 없었다.

다만 양을 채워야 하다 보니, 디자인보호법 한정해 심사기준 등의 부차적인 내용들도 암기했다. 또 가능한 물건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사안 포섭하려고 노력했다. 동차 때 61점 가량을 받았는데, 모든 선택과목이 그러겠으나 동차 때 pass 받아놓으면 기득 때 심적·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 동차 때도 선택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란다.

**V. 답안지 작성법**

**1. 목차 구성 방법**

**(1) 전체 목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점</li> <li>2. 논점 A (ex. → ~인지 여부 - '적/소극')</li> <li>3. 논점 B (ex. → ~인지 여부 - '적/소극')</li> <li>4. 결론 (ex. 결론 - '인용 심결' / 결론 - '등록 가능' 등)</li> </ol> |
|---|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답안지를 적으려 노력했다. 화려함보다, 필요한 내용들만 툭툭 건드리는 식의 목차였다.

문제점은 풀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① 논점 A에 대해 검토하고, ② 논점 B에 대해 살핀 후 ③ 결론인지 검토한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적었다. 요지는, 어떤 논점을 쓸 것인지 명확히 하고, 결론은 무엇이다 까지 아주 짧게 요약하는 글이다. 분량은 3줄 내외였다. 문제점이 점수에 들어가는가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인 답안지임을 드러내는데는 중요하다고 보인다.

논점들은 제목에 어떤 결론을 내고자하는지 미리 드러냈다. 예시를 들면, ① “甲이 무권리자 출원한 것인지 여부-‘적극’”, ② “A상표와 B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비유사’”의 방식으로 기재했다. 논점 별로 별도 목차를 세우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은 판례였다. 논점 목차 하나마다 판례가 1개 내지 2개 정도만 들어가도록 목차를 잘랐다. 사실 그러한 기준을 안 세우더라도 보통은 그렇게 잡힌다. 한편 그러다보니 상표는 목차가 많아지긴 했다.

결론은 별도 목차로 반드시 적었다. 짧게라도 적었다. 점수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다만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답안지를 드러내는데 주요하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을 그리 많이 안 쓴다. 논술 시험 자체가 ‘결론’을 내라고 하는 시험이라 보는데, 양이 많다보니 ‘근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공부를 쌓아 가며 근거를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적어낼 실력이 생겼다면, ‘결론’을 별도 목차로 기재 하는걸 강력히 추천한다.

**(2) 논점 별 목차**

1. 의의, 취지 (조문 병기 했다.)	1. 의의, 취지
2. 판례 (저는 判例로 썼다.) + 검토	2. 학설
3. 사안 포섭	3. 판례
	4. 검토
	5. 사안포섭

논점 별 목차도 당연하게도 간결하고 명확하게만 쓰려 했다. 목차 예시를 두 개 들었는데, 주로는 첫 번째 목차를 썼고, 민사소송법 내지 논점에 따라 더 면밀하게 써야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목차를 썼다. 물론 어떤 논점이 더라고 저렇게만 썼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러한 단순하고 명백한 틀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고, 논점, 문제에 따라 세부 차이는 있다.

심사기준이나 학설(민사소송법 제외) 및 ‘안 써도 되는’ 특허법원 판례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았다. 공부할 때도 외우려하지는 않았다. 답안지를 구성하면서, 내가 많이 암기하고 있다 보다는 내가 문제 잘 파악하고 있다는 니앙스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풀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목표 삼았는데 사실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나의 답안 형식이 그러한 느낌을 주는 베이직한 방법인지, 올해에 한정하여 먹힌 방법인지 확언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올해 수석을 했다면, 다른 해에 시험을 본 경우에 수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합격에는 충분한 방식이겠거니 생각된다.

**(3) 특징**

답안지 형식을 모범 답안의 모방을 통해 갖췄다. 매주 나오는 모범 답안 중 유독 잘 썼다고 느껴지는 답안이 있다. 그러한 형태 자체를 모방하려 했다. 여기서 형식은 순전히 가독성

을 위함이다. 수험생들도 스스로 고민해서 참신한걸 창조하려 하기 보단, 좋은 것들을 많이 참조하고 따라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고민하는 시간이 내게는 아까웠기에 자신의 개성과 생각보다는 스테디 하고 정형화된 “좋은”을 저 역시도 갖추려 했다.

## 2. 내용 작성 방법

의의 취지는 그냥 조문을 그대로 쓰는 수준이었다. 취지는 반 줄 정도로만 기재했다. 의의 취지 때문에 점수가 오락가락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느 논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의 취지가 아니고 판례나 사안 포섭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의의 취지는 가볍게 적었다.

판례는 80% 정확도로 썼다. 공부를 하면서 원문 그대로 외워진 판례는 잘 썼고, 그렇지 않은 판례들은 키워드와 논리 흐름을 정확히 쓰고, 연결어구나 어미 등 부차적인 것들은 말이 되게만 썼다. 그리고 해당 문제 풀이에 필요한 판례만을 적었다. 필요한 판례란, 사안 포섭에서 직접 적용되고 쓰여지는 판례를 의미한다. 백화점식 답안을 피함과 ‘풀었다’는 느낌을 주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논점에 어느 판례가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겟팅 해야 한다. 그 이해를 하는 방법은 앞서 ‘2. 대원칙 및 공부 방법 (2) 공부 방법 나. 이해’에서 상세히 기재했다.

나는 판례에 대한 검토도 약속했다. 모두 판례를 지지하는 방향이었고, 내용은 대단한걸 적지는 않았습다. 기본서에서 본 내용을 암기했거나 기억나면 그걸 적었고, 안나면 적정·공평·신속·경제 등 일반적 용어로 판례

를 지지했다. 원래는 검토를 잘 안적다가 수험기 최후반부인 6월 말 7월 무렵에 적기 시작했다. 이유는 어느 정도 법리가 쌓이다 보니 판례를 지지하는 검토 정도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건, 본인의 생각을 적으면 안 되고 판례 및 법률용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적어야 한다. 참신하게 검토를 적으려는건 차라리 적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한정) 확설은, 암기가 잘 됐다면 그대로 썼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은 키워드 위주로 썼고 앞뒤는 말이 되게끔만 일반적인 용어로 적었다. 가장 바람직함은 확설도 다 암기함이나, 민사소송법 판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기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선 키워드를 중점으로 외워나가길 추천한다.

사안 포섭은 가장 중요하다. 변리사 합격의 3대 요소라면, 암기, 논점 추출, 사안 포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 생각이리라 보여진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안 포섭에서 특히 “법을 잘 안다” 여부가 판가를 된다 생각한다. 내게 있어 사안 포섭은, 문제 지문과 써내려간 일반론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이였다. 문제를 읽고, 목차를 구성하고, 일반론을 적는 모든 과정은 결국 사안 포섭이라는 궁극을 향한다고 생각했다.

사안 포섭에서 중시했던 포인트는 다음 세가지다. ① 판례원문 논리, ② 사실관계와 판례 키워드 융합 기재, ③ 판례용어로 결론 기재가 그러하다. ① 판례원문 논리대로 적는건 곧바로 되기 어렵다. 판례집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례는 이런 식으로 사안을 포섭해 나가는 구나 받아들여진다.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 때도 사안 포섭을 하면 된다. ② 지문에

서 주어진 사실관계(문제 읽으며 직선으로 밑줄 그었던)와 일반론에 적었던 판례 키워드를 섞어 썼다. 문언적 의미대로의 포섭이다. ③ 사안 포섭에서도 반드시 결론을 명시했다. 예시로는 단지 “그러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다.”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상표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다.’로 결론 지었다.

내용기재의 요지는 일반론에 부담을 덜어내고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논리와 사안 포섭에 집중한 점이다. 언제까지나, 암기력 테스트가 아닌 법률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시험임을 유념하고 공부방향을 수정해나가길 바란다. 말하는 이유는 나 역시 방대한 암기량에 치여 방향성을 나도 모르게 잃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험인 관계로 그만큼 경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 V. 나가는 말

주제넘게 많은 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수험생분들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에 계십니다. 한편 빛은 반드시 우리를 비춰 줄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애쓰듯 세상은 그 과정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합격이든, 다른 형태의 행복이든 삶은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운 걸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공부방법론을 길게나 말씀드렸지만, 제 진심은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어떤 모습이시거나, 지지하겠습니다.

위대한 걸음걸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험 관련 더 궁금하신 점 [doctorkja@gmail.com](mailto:doctorkja@gmail.com) 메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